시즌 최종전서 코리안투어 평정한 열아홉살 김주형

12년만에 트리플크라운…역시 무서운 10대!

〈대상·상금·평균타수 1위〉

'LG 시그니처 플레이어스' 준우승
박상현에 5.54점차로 대상 역전
"올 목표 다 이뤄…언젠가 美 도전"
우승은 '손가락 욕설' 파문 김비오

2021시즌 KPGA 코리안투어 주요 타이틀 수상자

부문	수상자	2위
대상	김주형(5540.56점)	박상현(5535.02점)
상금	김주형(7억5493만 원)	서요섭(5억8557만 원)
평균타수	김주형(69.16타)	박상현(69.79타)
신인상	김동은(1650점)	김민규(983점)

12년 만의 '트리플 크라운(대상·상금·평균타수)'을 달성한 '무서운 10대' 김주형이 7일 경기 파주시 서원밸리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코리안투어 2021시즌 최종전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준우승 뒤 인터뷰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KPGA

12년 만의 '트리플 크라운(대상·상금·평균타수)'이다.

2002년생 '무서운 10대' 김주형(19)이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를 평정했다.

김주형은 7일 경기 파주시 서원밸리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코리안투어 2021시즌 최종전 'LG SIGNATURE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총상금 12억 원) 4라운드에서 2타를 줄이고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직전 대회까지 상금과 평균타수 1위를 달렸던 김주형은 박상현(35)에게 294.46점 뒤졌던 대상(제네시스) 포인트에서도 최종 5540.56점으로 박상현(5535.02점)을 단 5.54점 차로 따돌리고 타이틀을 차지했다. 대상 1위 김주형은 제네시스 차량 1대와 1억 원의 보너스, 코리안투어 5년 출전 자격을 부상으로 받았다.

최종 상금 7억5493만 원, 평균타수 69.16타를 기록하며 코리안투어 최초로 10대에 주요 타이틀 수상의 기쁨을 누린 김주형은 2009년 배상문(35) 이후 12년 만에 코리안투어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영광도 안았다.

아시안투어에서 프로에 데뷔한 김주형은 지난해부터 코리안투어에서 뛰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올해도 9월 DGB금융그룹 어바인 오픈까지 1승을 포함해 13개 대회에 출전해 5위 안에 8번 들었을 정도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상 1위를 달리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도전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퀄리파잉스쿨 2차전에서 1타 차로 최종전 진출에 실패했고 국내로 돌아와 최종전에 나섰다.

"스코어카드를 제출하고 나서야 대상 역전 소식을 접했다. 비록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코리안투어에서 상금왕과 대상을 차지하면서 올해 목표는 다 이룬 것 같다.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김주형은 "지난해 코리안투어에 데뷔해 한국 무대를 주무대로 삼으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다 이뤘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 잘해서 꼭 PGA에서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전 우승 트로피는 김비오(31)에게 돌아갔다. 3라운드까지 선두 김주형에 1타 뒤진 14언더파 공동 2위였던 김비오는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10개와 보기 1개로 무려 9타를 줄였다. 6타 차 압도적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2억4000만 원을 챙겼다.

2019년 DGB금융그룹 Volvik 대구경북오픈에서 손가락 욕설 파문을 일으키며 우승했던 그는 통산 6승 순간에 속죄를 하듯 별다른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다.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다시 한번 2년 전 실수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그는 "다시 그런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프로로서 걸맞은 행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파주 |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호블란,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 챔피언십 단독선두

빅토르 호블란(노르웨이)이 7일(한국시간) 멕시코 리비에라 마야의 엘 카멜레온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 챔피언십(총상금 720만 달러·85억4000만 원)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잡고 9언더파 62타를 쳤다. 2라운드까지 공동 3위였던 호블란은 중간합계 19언더파 194타를 기록하며 단독 선두로 뛰어 올랐다.

2019년 프로에 데뷔한 호블란은 지난해 2월 푸에르토리코 오픈에서 PGA 투어 첫 승을 신고한 뒤 12월 마야코바 클래식에서 통산 2승에 성공하는 등 2020~2021시즌 7차례 톱10에 이름을 올리고 페덱스컵 랭킹 5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새 시즌에 들어선 뒤 두 번째 출전대회였던 더 CJ컵에서 공동 18위를 차지했던 호블란은 세 번째 대회에서 통산 3승이자 대회 2연패 기회를 잡았다. 월드와이드 챔피언십은 마야코바 클래식이 이름을 바꾼 대회다.

테일러 구치(미국)가 호블란에게 두 타 뒤진 2위(17언더파 196타)에 올랐고,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보기 없이 7타를 줄여 16언더파 3위에 랭크됐다.

이번 대회에 우리 선수는 강성훈(34)이 유일하게 출전했으나 컷 통과에 실패했다.

국대 조우영, 아시아퍼시픽 아마챔피언십 공동3위

조우영

남자 골프 국가대표 조우영(20·한국체대)이 7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두바이 크릭골프 앤드 요트클럽(파71)에서 열린 아시아퍼시픽 아마추어 골프챔피언십 최종라운드에서 합계 12언더파 272타를 기록해 공동 3위에 올랐다. 김백준(20·한국체대)은 11언더파 273타로 공동 5위에 자리했다.

아마추어 세계 랭킹 1위 나카지마 게이타(일본)가 다이치 코(홍콩)와 14언더파 270타로 동타를 이룬 뒤 연장 접전 끝에 정상에 올랐다. 올해로 12회째인 이 대회 우승자에게는 마스터스와 디 오픈 출전권을 주며 2위 선수에게는 디 오픈 최종예선 출전 자격을 부여한다. 한국은 2009년 한창원, 2013년 이창우가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박지영, 3년만에 우승 입맞춤…통산 3승

S-OIL챔피언십 1타차 우승 짜릿
"연장 갈까봐 긴장 끈 놓지 않았다"

7일 제15회 S-OIL 챔피언십에서 우승 트로피를 추가하며 통산 3승을 달성한 박지영이 우승 확정 뒤 축하 물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KLPGA

박지영(25)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통산 3승을 달성했다.

7일 제주의 엘리시안 제주CC(파72)에서 열린 제15회 S-OIL 챔피언십(총상금 7억 원) 3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타를 줄였다.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2위 김수지(25·10언더파)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상금 1억2600만 원을 손에 넣었다. 2018년 12월 효성 챔피언십 이후 약 3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추가하고 통산 3승에 입맞춤했다.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6위로 3라운드를 맞은 박지영은 2번(파4) 홀 보기로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4번(파4) 홀에서 첫 버디로 잃었던 타수를 만회한 뒤 6번(파5), 8번(파4) 홀에서 재차 버디를 적어내며 전반에 2타를 줄였다.

13번(파4) 홀에서 이날 4번째 버디에 성공한 뒤 15번(파4) 홀에서 10m 거리의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궈 11언더파를 완성했다. 남은 3개 홀에서 모두 파를 기록한 뒤 먼저 경기를 끝냈고, 추격하던 뒷조 선수들이 힘을 내지 못하면서 결국 짜릿한 1타 차 우승 기쁨을 누렸다.

2015년 KLPGA 투어에 데뷔해 그해 신인상을 차지하고 이듬해 S-OIL 인비테이셔널에서 첫 승을 거뒀던 박지영은 5년 만에 S-OIL 챔피언십 정상에 복귀하는 기쁨도 누렸다.

박지영은 "1타 차여서 연장에 갈 확률이 크겠다고 생각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털어 놓은 뒤 "3번째 우승까지 오래 걸렸다. 너무 기쁘고 좋다"고 밝혔다.

S-OIL 챔피언십 최종 순위(파72)

	이름	스코어	라운드별 타수
우승	박지영	11언더파 205타	68-69-68
2위	김수지	10언더파 206타	66-70-70
공동3위	임희정	9언더파 207타	69-66-72
	장수연		69-68-70
	이소미		66-68-73

대상 타이틀을 놓고 경쟁 중인 박민지(23)와 임희정(21)은 각각 7언더파 공동 8위, 9언더파 공동 3위에 랭크됐다. 박민지는 대상 포인트 680점을, 임희정은 618점을 기록해 대상 최종 주인공은 12일 개막하는 최종전 SK쉴더스·SK텔레콤 챔피언십에서 가려지게 됐다. 김도헌 기자